회원사 탐방 13.

흥성사료공업(주)

▲홍성사료공장전경

“21세기 선도적 축산 과학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

▲정태원회장

현대사회의 특징을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변화”라고 해도 틀린말은 아닐 것이다.

특히 첨단산업을 주축으로한 산업사회의 기술수준 변화에는 흔히 “급격한”또는“엄청난”등의 표현이 덧붙여질 정도이다.

때문에 현대 산업사회를 이끄는 많은 기업들은 이같은 변화에 대한 유효·적절한 대응을 곧 기업전략 목표로 설정,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흐름에 부응, 일찍이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전략을 채택한 몇 안되는 기업중 하나로 꼽히는 흥성사료를 찾아가 본다.

▲중앙제어실

1967년 창업이래 "창의 · 성실 · 인화"를 사훈으로 항상 연구하는 기업, 노력하는 기업, 회사와 직원 그리고 양축농가 모두가 "한가족"으로 다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념을 추구하며 축산발전과 양축농가의 수익증대를 위해 끊임없이 경주해나가는 흥성.

국내 배합사료업계의 선두격으로 1997년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난 2005년부터 1년 6개월동안의 피나는 땀과 노력으로 이룩한 HACCP(2006년) 인증 획득은 이 시대의 큰 흐름에 역류할 수 없는 한 기업으로서 개성있는 독자적 영역확보를 위해 전사적 힘을 쏟고 있는 흥성사료의 진면목을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HACCP을 준비하며, 또 인증을 받은 후 변화된 것은 공장의 청결함만이주가 아니라고 한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mind 변화라는 것이다.

"Feed is Food"라는 슬로건 아래 활발히 움직였던 HACCP 준비를 통하여 내가 근무하는 환경의 변화가 직원들의 mind 변화로, 이는 곧 전체적인 인화로의 승화가 되는 핵심적인 계기가 된 셈이었다.

또한 현장근로자는 물론 수송기사에 대한 지속적인 HACCP교육 실시로 "깨끗해야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실천의 장을 열게 된 것이다.

"우리 흥성은 나름대로 독자적 기술체계 확립을 위해 10여년전부터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축산전문인을 수시로 초빙하여 선진기술을 습득, 축적된 Know-how를 바탕으로 그 어느 기업의 제품보다 높은 품질로 공급하여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이른바 기술개발전략에 다

▲박찬양HACCP 팀장

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정태원 회장을 비롯해 전 임원들의 한결같은 대답이다.

품질관리에 있어서는 위해요소를 사전 컨트롤하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예방적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즉, 안전성이 확인된 원료만 입고하여 사용하며 원료, 생산시설, 최종제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안전성 여부를 분석하고 있으며 외부분석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품질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또, 기술개발면에 있어서 앞서말한 바와 같이 외부적으로는 축산선진국의 새로운 기술 제휴와 도입을 통하여 흥성만의 기술을 축적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산학과 연계하여 활발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흥성사료만의 땀과 열정으로 지난 2006년 4월에는 「가금류의 감마지방산 강화를 위한 사료조성물」 특허를 획득하는 크나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창업 40년의 오랜 경험과 전통, 양축농가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이들의 편익증진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술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흥성사료의 또 하나의 강점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70여명의 전직원이 한 가족같은 응집력으로 매사에 임한다는 것이다.

정기적인 사내 직원교육, 탁구 · 족구 등의 체육대회, 등반대회 등을 통해 서로 감싸며 대화하

▲출고를기다리는제품들이산더미처럼쌓여있다

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한발씩 양보할 줄 아는 미덕에서 이러한 분위기는 싹트고 또 오늘의 흥성사료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인간적인 유대관계, 가족적인 경영이념이 지금의 흥성을 일구어 낸 원천력이 아닌가 싶다.

흥성사료는 향후 지속적인 물량증대, 기술적인 축적, 매출액 증대 등을 통하여 배합사료 제조업 부문에 있어 단일공장으로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을 기약하며, 또 그에 맞춰 끊임없기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밝아오는 정해년 새해에 흥성사료의 또 한번의 도약을 기대해 본다.